# **Personal Feelings**

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. 컴퓨터 구조 및 모바일 프로세서 수업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과제를 끝냈습니다. 기간에 맞춰 최대한 큰 노력을 들여 프로그램을 구현해 볼 수 있는 데까지 구현하였으며, 수업 시간에 들은 자식들과 과제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여러 지식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과제인 캐시 구현은 정말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어 매우 긴장감 넘치는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. 이때까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캐시를 직접 구현해보고,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. 다만,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캐시 구현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수 있는데, 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. 해당 과목을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수강하면서 정말 많은 컴퓨터 구조에 대한 자식들을 얻었습니다. 또한,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 프로그래밍 실력이 많이 늘었으며,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찾고 취합한 자료를 이해한 다음 이를 올바른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작성법을 배웠습니다. 이번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초기에 수행한 프로젝트들의 개념이 필요하여 찾아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령도 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.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미약하게나마 어느 정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. 다음 학기에 수강하게 될 운영체제가 기대되는 바입니다. 이번 학기 좋은 강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학기에도 더 좋은 강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.